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0.11.15.(월)

보도자료

2010년 11월 15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최영진 과장(☎750-2530)
통신경쟁정책과 이광용 사무관(☎750-2533) kylee@kcc.go.kr

「도매제공 대상과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의 기준」(도매제공 고시) 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5일 도매제공 제도시행을 위해 「도매제공 대상과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도매제공 고시)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도매제공 고시 의결에 따라 2006년 舊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시작된 도매제공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2G, 3G를 모두 포함한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음성, 데이터, SMS)가 도매제공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도매대가는 MVNO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 소매요금 대비 31% ~ 44%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에 의하도록 하였다.

< 고시 주요 내용 >

○ **(다량구매할인)** MVNO의 시장진입 또는 경쟁촉진 효과가 미흡한 경우, 방통위는 SKT 및 MVNO 사업자와 협의하여 다량구매할인을 대가산정에 반영

○ **(자가소비 제한)** MVNO가 자신 또는 구성원들의 통신비 절감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SKT가 도매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약관 마련)** SKT는 도매제공 대가, 단일 협상창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MVNO 사업자에게 공개

○ **(재제공(再提供) 제한)** 재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MVNO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SKT가 허용

KCT, 온세텔레콤 등 이미 MVNO로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들은 도매제공 고시마련에 따라 SKT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은 2011년 상반기 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KCT, 온세텔레콤 등 MVNO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20% 이상의 저렴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어, 2011년부터는 사업자간 통신요금 경쟁이 본격적으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량구매할인율 산정과 데이터 전용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11월 중 전담반을 구성 ·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30일 은행회관에서 MVNO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에서는 KT, SKT, LG U+의 MNO 3사가 각각 자사의 도매제공 제공방향을 발표하고, MVNO를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매제공 제도는 시장친화, 친서민을 기치로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해 온 MB 정부 통신서비스 정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사업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보다 저렴한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끝.

<참고자료>

MVNO-MNO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설명회

□ 개 요

o 일시 및 장소 : ’10. 11. 30(화) 10:00~13:00, 은행회관 국제회의장

o 주최 : 방송통신위원회

o 행사명 : MVNO-MNO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설명회

□ 설명회 세부 계획

구분	시간	주요내용
Session 1 정책 및 기조 발표	10:00∼10:10	축사
	10:10∼10:30	MVNO 제도 및 정책 방향 설명 (기조 발표)
	10:30∼11:00	해외 MVNO 성공과 실패 사례 및 시사점 분석
Session 2 MNO 도매사업 방향 설명	11:00∼11:20	SKT의 도매제공 사업 방향 및 주요 내용
	11:20∼11:40	KT의 도매제공 사업 방향 및 주요 내용
	11:40∼12:00	LGT의 도매제공 사업 방향 및 주요 내용
Session 3 MVNO 사업 전략 설명	12:00∼12:15	음성 MVNO
	12:15∼12:30	선불 MVNO
	12:30∼12:45	콘텐츠 또는 데이터 MVNO
	12:45∼13:00	Q&A